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작자미상, 『예언자 아모스』 (c1235).
대리석, 샬트르 성모대성당, 프랑스.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13 참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뽑아 보내신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파견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거드는 영광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돈이나 여벌옷을 지니지 못하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원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아모 7,12-15 **제2독서** 에페 1,3-14 또는 1,3-10 **복음** 마르 6,7-13.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시편 142,5)

김태한 바오로 신부 | 감삼본당 주임

사람은 의지(depending)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의지함'의 연속이다. 그래서 의지할 곳 있고, 그 의지할 곳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참 행복한 사람이다. 반대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될 때, 그 때는 정말 사는 일이 막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든든하게 의지할 곳이나 의지할 것을 찾는다.

그런데 '의지할 곳'이란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하다. 세상이 가장 흔히 선택하고 또 원하는 바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그것도 못미더우면 자신의 능력에만 기대어 살거나, 이도 저도 다 못 미더우면 재물이나 권력 등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지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상이 얘기하는 '의지할 곳'들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다 보면 결국 번뇌와 고난, 절망, 영적 메마름, 슬픔 등의 고통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믿고 살다가 스스로 힘들어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그것을 쉽게 놓고 살지 못한다. 신앙을 하는 우리 자신 또한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길

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흔히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다. 권유가 아닌 ‘명령’을 하신 주님의 속내를 헤아려보면 제자들에 대한 큰 사랑이 느껴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신앙 또한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이 명령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에게 의지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곳(집)에 “머물라”고 명하셨다. 그분의 진리와 사랑의 친구가 있는 곳에 머물라는 말씀이다. 어떤 특정 장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또한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집’(공동체, 교회)이 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에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허망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거두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필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지난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성하께서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라는 참상은 존중과 정의와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소명과 친교의 삶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 저는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네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왜 소외된 이들을 특히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작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곤, 불평등, 억압과 같은 악을 억제하고 주님께 서 바라시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모든 제자의 필수 의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회가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가르침이 더욱 절실했지만, 사랑 실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구 100주년을 맞아 열렸던 제2차 교구 시노드에서도 새로운 세기를 위한 지침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것을 선정하였고, 올해 우리 교구의 사목 지침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이것이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자 명령임을 잊지 맙시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가난한 라자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저 부자를 닮아서 안 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27항)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빈곤과 사회적 약자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항) **필독**

대구주보에서는 이번 호부터 간추린 가톨릭 사회교리와 사랑 실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소개를 연재합니다.

함께 섬길 수 없다

김요한 세례자요한 신부 | 태전본당 보좌

얼마 전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광활한 자연과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감탄사를 연 발하고 돌아왔습니다. 깎아 내지르는 절벽에 설치된 길과 계단들. 해발 1,200미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놀라운 문명이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는 서글픈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상해 시내 거리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였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목이 탔고, 시원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카페의 일회용 컵을 흔들며 구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찢릿함을 느낍니다. 제가 자주 가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그곳에서 분위기를 즐기고 커피 맛을 즐기던 내 모습.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즐기던 내 모습이 그 컵에 담겨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과 거대한 중국의 경제 발전을 보며 감탄사를 내지르던 지난 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즐기고 버린 컵을 들고서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나만 이런 즐거움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그들을 ‘잊어버리고’ 나만 즐기는 것이 하느님의 눈에 어떻게 담길지.

돈으로 이룩한 세상,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돈이 주는 낭만과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지만 우리는 돈이 주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일 포기하지 못한다면, 사람 위에 돈이 있다면,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자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할머니에게 한국 돈 얼마를 쥐어드리고 돌아온 지금, 얼마를 드렸다고 자위하기엔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보다 불리하고 약한 누군가를 기억하는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나보다 타인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빛과 소금**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서 있었던 스탠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며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

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스탠



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 버려야지요!” 참모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 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틴은 링컨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필로**

금주의 성인

7월 12일	성녀 마르치아나(동정순교자, 톨레도, 300년), 성 야손(순교자, 1세기경) 성 요한 팔베르토(설립자, 수도원장, 995~1073년), 성 펠릭스(군인, 순교자, 밀라노, 303년)
7월 13일	성 헨리코 2세(황제, 973~1024년), 성 세라피온(순교자, 195년) 성 실라(사도들의 제자, 증거자, 1세기경), 성 에우제니오(주교, 증거자, 카르타고, 505년)
7월 14일	성 가밀로(신부, 설립자, 1550~1614년), 성 니고데모(수사, 아토스산, 1748~1809년) 성 테우스데디트(주교, 캔터베리, 664년), 성 마르첼리노(선교사, 762년경) 성 올릭(수도원장, 클뤼니, 1020~1093년), 성 프로코피오(수도원장, 사자바, 980~1053년)
7월 15일	성 다윗(주교, 스웨덴, 1080년), 성 보나벤투라(추기경, 신학자, 교회학자, 1217~1274년) 복녀 안젤리나(과부, 마르시아노, 1377~1435년), 성 도날드(수사, 오길비, 8세기)
7월 16일	성녀 라이델다(동정순교자, 680년경), 성 에우스타키오(주교, 증거자, 안티오키아, 340년경) 성 시세난도(순교자, 코르도바, 851년), 복자 밀로(주교, 테루안, 1158년)
7월 17일	성 레오 4세(교황, 855년), 성녀 마르첼리나(동정녀, 398년경) 성 알렉시오(증거자, 로마, 417년), 성녀 헤드비지스(여왕, 폴란드, 1374~1399년) 성 클레멘스(선교사, 주교, 오크리다, 916년경), 성 엔노디오(주교, 파비아, 521년)
7월 18일	성녀 마리아(동정순교자, 오렌세), 성 프레데리코(주교, 순교자, 위트레흐트, 838년) 성 아르놀포(주교, 은수자, 메스, 582~641년), 성녀 심포로사(순교자, 135년경)

■ 1대리구 사제 피정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7월 3일(금) 오전 11시 한티 피정의 집에서 1대리구 사제 피정 파견미사를 봉헌하셨다.

■ 대잠성당 견진성사



대주교님께서는 7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대잠성당에서 50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8주간, 2015. 7. 12.~7.18>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혜17-19장	집회1-3장	4-6장	7-9장	10-12장	13-16장	17-19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집회서』: 본문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 제1부(1,1-16,23):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경외함'이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삼가 공경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이다.
- 제2부(16,24-23,28): 하느님의 창조 위업과 그 앞에 선 인간의 위치를 말한다. 인간이 받은 능력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업적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 제3부(24,1-32,13): 지혜와 율법에 관한 가르침과 여러 가지 금언들을 소개한다. 여기서 지혜는 결국 율법과 동일시된다.
- 제4부(32,14-42,14): 하느님 경외와 올바른 처세를 강조한다. 지혜로운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르므로 주님의 충애를 받고 시련 속에서도 그분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다.
- 제5부(42,15-50,29): 하느님의 영광과 조상들의 올바른 삶을 기린다. 창조된 자연과 율법에 따라 산 훌륭한 인물들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유혹에 안 빠지려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7월 18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프란치스칸의 후원회미사	7월 18일(토) 15:00 프란치스카노 (월배수도원 뒤)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3일(월) 11:30 범어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 모임

일시: 7.19(일) 14:00, 부산 수녀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마리아 영성 피정

일시: 7.15(수) 13:00~16:30
8.19(수) 13:00~16:30
내용: 성체현시, 미사, 안수
지도: 강 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7.17(금) 23:00~19(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시민회관에서 16:00 출발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7.18(토) 11:00~19(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 (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010)5490-5345

베네딕도 영성관 신약성경 통독 피정

전반부: 7.30(목) 9:45~8.2(일) 17:00
후반부: 8.17(월) 9:45~20(목) 17:00
회비: 각 14만 원, 문의: 313-3425

성모님과 함께 6일 침묵 치유 피정

1차: 8.3(월)~8(토), 안양 아론의 집
2차: 8.9(일)~14(금), 양산 바오로 영성관
강사: 안토니오 신부(인도 신부 후임)
대상: 누구나 / 성경, 미사, 필기도구
문의: (010)9040-2507 / (010)2281-5689

교육 | 모집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5차원 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7.29(수)~31(금) 40기
장소: 구미선산청소녀수련관 / 28만 원
대상: 초·중고대생 / 다음카페: 유아청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청년프란치스칸 여름 캠프

기간: 7.30(목)~31(금)
신청마감: 7.18(토)
주최: 재속프란치스코회
문의: (010)3512-0914

제4회 국악성가 캠프

기간: 9.4(금)~6(일) / 18만 원
장소: 대전 하상바오로교육관
내용: 일반, 합창, 지휘, 장구, 무용 택1
신청: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소,
(070)8875-8827

홍성남신부님의 힐링 크루즈 순례

기간: 9.29(화)~10.12(월) 13박 14일
장소: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그리스
경비: 내측 49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하는 순례

장소: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박 5일, 58만 원)
아키타 성모님 순례(2박 3일)
문의: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육수(아네스) 010-5048-7739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내선) 260-7575
☎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앞(구달성군청지리)

이시우 신경
http://적주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 종 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한투어
HANTOUR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8.3(월)~5(수), 무학연수원
중3~고2: 8.5(수)~7(금), 무학연수원
고3,대학,일반: 7.21(화)~23(목), 한티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7.12(일)

월막(성령봉사회)성당 성전봉헌식

일시: 7.19(일) 15:00
장소: 고령 월막 대구성령봉사회관
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차량: 성모당 대건인쇄소 앞 13:30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집

7월 가나 강좌

일시: 7.19(일) 10:00~17:30(9:30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슈발리에 축제

기간: 8.7(금)~9(일), 부산본원
접수: 7.5(일)부터 선착순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 / 6만 원
문의: (010)9330-3104 / (010)3241-3107

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8.18(화) 오전반 10:00~12:00
저녁반 19:00~21:00

장소: spc영성상담센터·에니어그램연구소
문의: 659-3455~6 / 254-2664

소나무학교(UPAS)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6월~8월
대상: 고등1~3학년 과정이 되는 학생
문의: 푸른평화, 850-1195
<http://www.upas.co.kr>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야간반(20명): 개강 9.12(토)~12.12(토)
교육: 월,수,금 18:30 / 토 14:00
대상: 65세 미만 / 학력, 남녀 제한 무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지원)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특수대학원생 모집

모집: 특수대학원(의료과학대학원, 사회
복지대학원, 음악대학원, 창조융합대학원)
문의: 660-5511~5513
<http://spgr.cu.ac.kr>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양로원 입주 어르신 모심(기초수급대상)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 하신 분
기관: 성모애덕의집(수녀회 운영)
문의: (054)976-6219 / (010)9568-0099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비전선포시

7.16(목)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Stella 2020 사랑과 섬김으로

치유의 희망을 주는 최고의 병원!”
이란 비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요양원 어르신 모집, 간호사 요양사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여성어르신
문의: 파티마홈(베네딕도수녀회 운영)
324-1188 / (010)8595-1186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지원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 마감: 7.22(수)
상세: <http://dormitory.cu.ac.kr>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곽연옥(말찌나), 박천일
문의: 교구법원, 253-9550

교구에서 운영하는 『데레사소비
센타』는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곳뿐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데
레사농수축소비센타』는 개인 소
유로서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성모님발현 성지순례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12박 13일)
출발일: 9월 2일 (출발확정)
T. (053)253-3399
☀ (주)영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수입자 전문 서비스센터 / 자동차 토털서비스

에스모터스
MOTORS
대표 장 용 보(로마노) 053)766-3200
010-5092-8646
"정직한 견적" "편리한 픽업 서비스"
수입자 수리, 사고차량 수리(일반/보험)
수입/국산 렌트카, 중고 수입차 매매
컨닝, 블랙박스, 튜닝, 코팅, 광택, 타이어
희망네거리에서 수성시장 방향 10M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책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이 원 의 료 기

협업계·협당계·협체어·산소치료기
뜸·부항기·주열기·찜질기
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안마기
실버카·보호대·글루코사민·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CT 및 초음파 검사
영상투시 및 프롤로 치료
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김민지(사바나)

新 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